

중국인 학습자의 보조사 사용의 오류 분석

하동매

1. 서론

한국어 교육이 심화됨에 따라 오류 분석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서 기울여지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사는 그 의미의 다양성으로 하여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자의 작문에서 보조사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 비교를 하여 오류 분석을 하고자 하며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 한국어 학습 부족에 의한 오류의 추적을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문법 체계를 기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류를 기술하는 가장 일반화된 분류는 대치, 첨가, 누락, 어순인데 본 연구에서는 대치, 첨가, 누락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고에서 자료로 삼은 것은 대련외국어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작문자료와 시험자료이다. 오류라고 판단이 되는 보조사의 사용에 대해서 양상을 제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모국어의 간섭과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르는 극복방안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보조사의 학습과 사용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3. 중국인 학습자의 보조사 사용 오류

보조사의 정의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체언, 부사, 활용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로 되어있다. ‘한국어문법의 이해’(이주행, 2000)에서는 ‘보조사’로 부르지 않고 ‘특수조사’라 하고, ‘체언이나 그 밖의 단어에 결합하여 어떤 뜻을 첨가하여 주거나 격조사를 대신하여 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이다’로 규정하였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보조사는 ‘까지, (이)나, 는/은, 는(은)커녕, 도, (이)란, 마다, 만, 밖에, 보고, 뿐, 야말로, 조차, 치고’ 등이다. 아래에 이상 보조사의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를 대치, 첨가, 생략의 순서로 살펴보려고 한다.

3.1 대치의 오류

(1) 까지

- 1) ㄱ. 상해는 북경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도착한다.
(에)
- ㄴ. 사장님은 출장가다니까 회의는 다음주까지 미뤄야 한다. (이, 간다니까, 로)

‘까지’는 중국어의 의미가 “到”인데 예문 ㄱ은 중국어로 “.....(到)第二天下午到达”이므로

‘에’를 써야 할 자리에 ‘까지’를 썼다. 예문 ㄱ은 앞에 ‘기차’라는 전제가 없으면 맞을 수도 있다. 예하면 ‘학생들은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한다.’ 즉, ‘까지’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마지막 한계점이지,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다. 위의 문장에서 ‘기차’는 일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오후 ‘5시 전’의 임의의 시점에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기준점을 나타내는 ‘에’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문 ㄴ은 ‘로’를 써야 할 자리에 ‘까지’를 썼는데 그 원인도 문장의 후행절이 중국어로 “会议推迟到下周”여서 “到”가 있으므로 ‘까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 동사 ‘미루다’는 보통 앞에 조사 ‘로’가 와서 ‘...을 ...로 미루다’의 형식으로 쓰인다. ‘미루다’에 ‘결정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로’도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기에 같이 어울려 쓰일 수 있다.

(2) 는/은

- 1) ㄱ. 어머니는 나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게 하셨다. (를)
- ㄴ. 저는 숭배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예문 ㄱ은 ‘는’으로 ‘를, 가’를 대치하였는데,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과는 좋아한다’로 변형될 수 있기에 ‘는’으로 ‘를’을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머니가 나에게만 그림을 배우게 하고, 동생을 배우게 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이 성립이 되지만 이런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원래의 조사 ‘를’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예문 ㄴ처럼 ‘는’으로 ‘가’를 대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는’과 ‘가’가 모두 주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ㄴ과 같은 경우는 ‘저’가 소주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조사 ‘는’을 사용하였는데, 소주어는 뒤에 모두 ‘가’가 쓰여야 한다. 학습자들은 보조사 ‘는’과 격조사 ‘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와 ‘는’의 주된 차이는 첫째, ‘가’는 처음 제시한 사물에 쓰이며 ‘는’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에 쓰인다. 둘째, ‘는’은 대조를 나타낸다. 셋째, ‘는’은 대주어, ‘가’는 소주어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으나 이상의 것들을 장악하면 ‘가’와 ‘는’을 잘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밖에 ‘는’과 ‘은’처럼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분하여 곡용하는 보조사의 경우 이 두 음을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 2) ㄱ. 그 마노은 보통 둘과 비슷합니다. (는, 과)
- ㄴ. 우리들는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은)

이런 오류는 학습자의 학습부족으로 나타난 오류라고 생각되므로 특별한 방안보다 학습자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3) 는(은)커녕

- 1) ㄱ. 평소커녕 시험보는 기간에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평소는 물론이고)
- ㄴ. 지금 버스는커녕 자기의 자동차도 있어요. (는 물론이고)

이 예문들은 ‘커녕, 는커녕’으로 관용형 ‘는 물론이고’를 대치하였는데, ‘커녕’은 중국어로 “...不用说...就连...”으로 번역되기에 중국어로 비슷한 뜻을 가진 ‘는 물론’과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는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못하거나 덜한 것까지 부정’하는 조사이다. ‘밥은커녕 죽도 못 먹는다.’를 예로 들어 말하면 ‘밥’을 부정하면서 ‘죽’도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을 나타내기에 ‘는커녕’의 서술어는 부정이거나 부정의 뜻을 가진 말이어야 한다. 위의 문장들은 서술어가 부정이 아니기에 ‘는커녕’을 쓸 수 없다. 위 문장은 문맥의 의미로 보아 ‘는 물론’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2) 방금 배운 것은은커녕 잊어버렸어요. (조차)

예문 2)는 ‘은커녕’으로 ‘조차’를 대치하였는데, ‘은커녕’과 ‘조차’는 중국어로 모두 ‘...就连...’으로 번역되기에 혼동하여 생긴 오류이다. ‘는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못하거나 덜한 것까지 부정’하기에 ‘는커녕’이 쓰인 문장에는 비교되는 두 사물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 위의 문장은 ‘방금 배운 것’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배운 것’을 첨가하여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는 문형 ‘는 물론’을 쓸 수 있다. ‘이전에 배운 것은 물론 방금 배운 것도 잊어버렸어요.’의 형식으로 고칠 수 있다. 또한 이 문장은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 양보한다’는 뜻이므로 ‘조차’를 쓸 수 있다.

(4) 처럼

- ㄱ. 어머니처럼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같은)
- ㄴ. 홍수처럼 정보앞에서는 내가 자주 현혹되다. (같은, 현혹된다)
- ㄷ. 그는 햇빛처럼 미소가 있다. (같은)

이상의 문장들은 ‘같은’을 써야 할 자리에 ‘처럼’을 썼는데 그 원인은 중국어에서 ‘처럼’과 ‘같은’은 모두 “像...一样”으로 번역되므로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처럼’은 조사로서 체언 뒤에서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고 ‘같은’은 ‘같다’의 관형사형으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처럼’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같은’은 관용어가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처럼’은 뒤에 용언이 오고 ‘같은’은 체언이 온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5) 만

- 1) ㄱ. 10분만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십시오. (밖에)
- ㄴ. 그 일을 조금만 모릅니다. (밖에)
- ㄷ. 한 번만 없는 기회를 놓쳤어요. (밖에)

1)의 예문들은 ‘만’으로 ‘밖에’를 대치하였는데, ‘만’이 ‘한정’을 나타내기에 1)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만’은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구문환경에 있어 서술어가 긍정이어야 한다. 위 문장들은 모두 부정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밖에’를 써야 한다.

2) 우리는 한 시간만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다. (밖에 안)

예문 2)는 ‘만’으로 ‘밖에 안’을 대치한 오류이다. 역시 ‘만’이 ‘한정’을 나타내기에 2)에 썼을 것이다. ‘걸리다’와 ‘들다’는 ‘시간, 돈 등이 들다’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며 그 앞에는 보통 ‘몇 시간, 며칠, 몇 원’ 등이 온다. 이때 이 ‘시간’이나 ‘돈’ 뒤에는 보통 ‘가/이, 를/을’이 쓰이며 이 수량이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정적으로 ‘밖에’가 쓰이고 따라서 서술어는 부정문이 된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처럼 쓰이며 기타 조사는 허용이 안된다. 위의 문장은 ‘우리는 한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다.’ 또는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는 데는 한 시간밖에 안 걸렸다.’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ㄱ. 혹시 내가 사랑한 가을은 초가을만 이에요. (아마, 뿐)

ㄴ. 어머니께서 평범한 사람만입니다. (께서는, 뿐)

예문 3)은 ‘만’으로 ‘뿐’을 대치한 경우이다. ‘만’과 ‘뿐’ 모두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나타난 오류이다. 즉 이 오류는 한국어 자체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과 ‘뿐’은 의미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동생만 왔어요.’는 ‘동생뿐 왔어요.(X)’로 대치할 수 없다. 즉, ‘뿐’은 의존명사로서 단독으로 명사에 쓰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뿐이다’ 등 형식으로 다른 요소와 어울려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나타낸다.

(6) 밖에

어제 돈을 많이 써서 조금밖에 남았어요.

‘밖에’로 ‘밖에 안’을 대치하였다. ‘밖에’가 ‘한정’을 나타내기에 위 문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밖에’는 ‘한정’을 나타내면서 후행문은 부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문장의 서술어는 ‘안 남았어요’로 되어야 한다.

(7) 보고

ㄱ. 친구는 나보고 먼 곳에서 생일선물을 부쳤다. (에게)

ㄴ. 자기 가슴이 아픈 이유를 남보고 알려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에게)

ㄷ. 초등학교 학생보고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에게)

이상 예문은 ‘보고’로 ‘에게’를 대치한 경우이다. 학습자들이 ‘보고’가 ‘에게’와 뜻이 같다고 생각하여 이런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한국어의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이다. ‘보고’와 ‘에게’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보자면, ‘보고’는 동사 ‘보다’에서 왔기에 사용범위가 아주 좁아서 ‘말하다, 웃다, 묻다, 이야기하다, 화를 내다’ 등 대면이 필요한 동사와 어울릴 때만 쓰인다. 그 외의 경우에는 쓰이지 못한다. 이 경우, ‘에게’로 대치할 수 있다. 하지만 ‘에게’는 뒤에 오는 동사의 의미와 관계없이 간접목적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모두 쓰일 수 있다.

(8) 부터

- ㄱ. 형이 내일 일본부터 떠납니다. (에서)
- ㄴ. 저는 미국부터 온 존슨입니다. (에서)

‘부터’는 중국어로 ‘从...’으로 번역되는데 ‘从...’은 중국어에서 사물이나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에 두루 붙는다. 그리하여 학습자는 ‘부터’를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과 같이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사물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는 붙을 수 있으나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에는 ‘앞말이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에서’가 쓰여야 한다. 강조를 나타낼 때는 ‘에서부터,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9) 조차

맥주조차 마셔? (까지)

‘조차’로 ‘까지’를 대치한 오류인데 ‘포함’을 나타내기 위해 ‘조차’를 쓴 것으로 보인다. ‘조차’는 ‘포함’을 나타내면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를 나타낸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라는 문장은 ‘그 사람을 알 리가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까지’도 ‘포함’을 나타내는데 ‘아주 높은 정도, 또는 예상외의 일’을 나타낸다. ‘그 사람의 집까지 알아요.’는 앞의 문장과 대조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예문은 높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까지’를 써야 한다.

3. 2 첨가의 오류

(1) 는

- 1) ㄱ. 우리는 늘 운동장에는 모여 축구를 합니다. (에)
- ㄴ. 제 눈에는 제 고향은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
- ㄷ. 올해에는 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에)

이상 예문들은 ‘에’에 ‘는’을 첨가하였다. ‘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이며 사용되는 범위도 넓어서 학습자의 과잉사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는’은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연속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는’이 연속 쓰이는 경우가 적다.

- 2)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은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 (보다)

이 예문은 ‘보다’ 앞에 ‘은’을 첨가한 오류이다. ‘운동장에’가 보조사 ‘도’와 어울려 쓰일 때 ‘운동장에도’의 형식으로 쓰이기에 ‘보다’를 쓰면서 원래 조사 ‘은’도 대치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합용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부 조사들은 두 개의 조사가 같이 쓰이면 그 중의 한 조사가 자동적으로 다른 조사로 교체되거나 일부

조사들은 반드시 두 개의 조사가 함께 쓰여야 한다. ‘나는 운동장에도 가지 않았다.’에서 ‘운동장에도’를 ‘운동장도’로 쓰면 어색하다. 하지만 ‘나는 소설책을 사왔다.’에서 ‘소설책을’은 ‘소설책도’로 바뀔 수 있으며 ‘소설책을도’라고 하면 오류가 된다. ‘보다’는 ‘가보다, 을보다, 은보다’로 쓰이지 않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합용되어 쓰는 조사를 모두 써야 한다. 예하면, ‘에서보다, 예보다, 도보다, 로보다...’ 등 형태이다.

(2) 도

- 1) ㄱ. 사실은 오늘은 한가위 뿐만 아니라 내 생일도이셔. (한가위일, 이기도 해)
- ㄴ. 그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교육가도입니다. (철학자일 뿐만, 이기도 합니다)
- ㄷ. 좋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도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예문 1)은 ‘도’를 첨가한 오류이다. ㄱ의 후행절은 중국어로 “也是我的生日”이다. 이 경우 ‘생일’ 뒤에 ‘포함’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를 쓰려고 한 점은 맞으나 ‘도 + 이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홀시하였기에 오류가 생겼다. ‘뿐이다, 만이다, 부터이다, 까지이다’ 등은 성립되나 보조사 ‘도’는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이런 문장에서 ‘포함’을 나타내려면 문형 ‘이기도 하다’를 이용해야 한다. ㄴ, ㄷ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 2) 그의 자동차를 누구나도 다 빌어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문 2)도 ‘도’를 첨가한 예이다. ‘포함’을 나타내려고 ‘도’를 썼는데, 보조사 ‘나’가 이미 ‘포함’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도’를 첨가하면 오류가 생긴다. 보조사 ‘나’는 ‘아무나, 언제나, 누구나, 어디나’ 등과 같이 의문을 나타내는 명사와 어울릴 때 ‘포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 뒤에 ‘도’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 3) 가끔도 책중에 인물에 감동합니다. (가끔은, 감동하기도 합니다)

3)은 부사에 ‘도’를 첨가한 경우인데, 그 원인은 이 문장이 중국어로 “偶尔也...感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어 문장의 “也”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也”는 대부분 명사와 어울리는데 이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위치는 동일하여 ‘我也→나도’로 대응된다. 부사와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再也...不..., 一点儿也...不...”의 형식으로 쓰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시는...-지 않는다, 조금도...-지 않다’가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예문과 같은 경우인데 뒤에 긍정문이 쓰인다. ‘经常也, 偶尔也’ 등이 그 예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주, 가끔’이 되고 ‘도’가 붙지 않는다. ‘포함’의 의미는 서술어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위의 서술어는 ‘감동하기도 합니다’로 되어야 한다.

- 4) 혹시 평생에 잊지도 않겠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4)는 어미에 ‘도’를 첨가한 오류인데, 이는 이 문장이 중국어로 “我永远也不会忘记。”로, “也”가 있으므로 ‘도’를 사용하였다. 위 중국어 문장에서 “也”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이며 이 “也”는 ‘포함’을 나타낸다고 하기보다 ‘양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동사를 넣어서 말할 경우, ‘죽어도 잊을 수 없다’, 부사를 넣어서 말할 경우, ‘평생/영원히 잊을 수 없다’로 되어야 할 것이다. ‘도’는 연결어미 ‘지’와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의미가 위의 문장과 다르다. 즉, ‘애가 넘어지지도 않고 잘 걷네’와 같은 경우에는 감탄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다.

5) ㄱ. 그는 고시에 관한 책도 많이 샀다. (도)

ㄴ. 우리집에 책이도 많습니다. (도)

예문 5)는 ‘을’, ‘이’를 ‘도’에 첨가한 오류로, ‘도’를 첨가한 오류는 아니지만 역시 보조사와 격조사의 함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았다.

(3) 뿐

메시지에는 이런 말만이었습니다. (말뿐)

이 예문은 ‘만’을 첨가한 오류이다. ‘한정’의 뜻을 강조하려고 ‘만’과 ‘뿐’을 함께 썼는데 이 두 형태는 함용되어 ‘말만’으로 될 수 있지만 ‘만뿐’으로 될 수는 없다.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여 써야 한다.

3. 3 누락의 오류

(1) 까지

날씨가 추워때 영하 몇도 내렸어요? (추울 때, 몇도까지, 내려가요)

이 예문은 ‘까지’를 누락하였는데 중국어의 영향으로 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넣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조사는 특히 누락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는

ㄱ. 우리 아주 기뻐다. (우리는)

ㄴ. 나 불고기 좋아한다. (나는)

ㄷ. 젊은이 누구나 베이징 대학에 가는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가기를)

이상 예문들은 ‘는’을 누락하였는데 중국어는 조사가 없는 독립어기에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영향으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는’, ‘가’, ‘를’, ‘과’와 같은 조사를 자주 생략한다. 대화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조사를 생략하여도 의사소통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러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조사를 생략하지 말고, 조사가 생략된 문장은 원래 어떤 조사가 쓰였을지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책(을) 가져왔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등

이 그 예이다.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공식적인 장소나 글을 쓸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알도록 해야 한다.

3. 4 기타 오류

대치, 첨가, 누락의 오류 외에도 보조사의 의미의 다양성으로 하여 생기는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나

수십만 국민이나 상대방 국가에서 생활한다. (수십만이나 되는 국민이)

조사 '(이)나' 가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나' 는 수량이 많거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키가 180이나 되어요.' 와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 예문에서 '(이)나'는 '수십만' 뒤에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수량 + 되다'의 구조로 쓰이므로 뒤에 '되다'를 붙여 써야 한다.

(2) 란/이란

예: 건강이란 몸과 정신 모두 건강하거든.

이 문장은 '건강한 것을 말하거든'을 써야 할 자리에 '건강하거든'을 썼다. '이란'은 '이라고 하는 것은'의 준말로서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다'와 같이 쓰인다. 즉 '...이라고 하는 것은 ... 이다/는 것이다/는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여야 한다. 위 문장은 뒤의 부분이 앞의 부분의 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오류이며 서술어를 '건강한 것을 말하거든.'으로 고쳐야 한다.

(3) 마다

- ㄱ. 시험을 볼때마다 전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보기 전마다)
- ㄴ. 고등학교때 새학기 되마다 학교에 돌라운 학생들의 물결이 정말 장관이다. (될 때마다, 돌아온)

이상 예문들은 '마다'가 '전에, -르 때' 등과 어울릴 때의 위치를 잘 몰라서 생긴 오류이다. '마다'에 해당되는 '每'는 중국어에서 맨 앞에 오지만, 한국어의 '마다'는 '보기 전마다, 될 때마다'처럼 맨 뒤에 온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4) 만

세민씨는 일요일이 되기를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을)

이 예문은 ‘만을’을 써야 할 자리에 ‘를만’을 썼다. 이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합용문제인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격조사가 보조사보다 쓰이는 범위도 넓고 작용도 중요하기에 앞에 놓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 학습자는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를만’은 ‘만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목적격조사 ‘을’이 ‘일요일이 되기만’ 뒤에서 이 성분이 목적어임을 밝히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부사격조사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만 공부해요.’에서 보면 ‘만’이 ‘에서’의 뒤에 있다.

(5) 야말로/이야말로

너야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다. (야말로)

이 예문은 ‘야말로’를 써야 할 자리에 ‘야만’을 썼다. ‘야’가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이기에 ‘야’를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내려고 하였고 거기에 ‘만’을 사용하여 한정을 나타내었다. ‘야’는 강조를 나타내면서 ‘당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야 철수가 잘하지요.’에서 강조하는 바는 철수가 평소에도 계속 영어를 잘해왔기에 당연히 잘 할 것이라는 뜻이다. 위 문장은 ‘당연하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기에, 단순히 강조를 나타내는 ‘야말로’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야’와 ‘만’은 결합하여 ‘야만’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6) 처럼

- ㄱ. 부모님께서서는 나는 진짜 남처럼이라는 말을 자주 말하십니다. (같다는)
- ㄴ.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않고 바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같다는)
- ㄷ. 제 친구는 다 제 성격이 아이의 성격처럼이라고 합니다. (같다고)

이 예문들은 ‘같다는, 같다고’를 써야 할 자리에 ‘처럼이라는, 처럼이라고’를 썼다. 이 예문들에서 ‘같다’가 체언 뒤에 쓰여야 하는데 ‘같다’가 형용사이므로 체언 뒤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처럼’으로 대치하여 썼다. ‘같다’는 형용사로, 주로 ‘과 같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과’가 자주 생략되기에 조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쓰인다. 즉 체언 뒤에 직접 붙을 수 있다. 예하면,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와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는 모두 성립된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에서도 ‘같다’는 체언 뒤에 쓰일 수 있다. 그밖에 ‘처럼’과 ‘같다’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 ‘처럼’은 조사로 체언 뒤에 붙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도록 한다.

(7) 치고

- ㄱ. 어린 아이치고 이 과자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 ㄴ. 대학생치고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 ㄷ. 고등학생치고 이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문들은 ‘치고’ 뒤에 부정의 표현이 없어서 오류가 생겼다. ‘치고’는 ‘전체가 예외없이’

의 뜻을 가지면서 뒤에는 부정문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들은 모두 뒤의 서술어를 부정의 형태로 고쳐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는 주로 오류의 판단 기준이나 평가, 원인을 추적하기보다는 실태를 기술하거나 빈도를 고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사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를 주로 살펴봄으로써 보조사를 가르침에 있어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할 항목이 어느 것인가를 밝힌 점과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중국어와의 비교 속에서 살펴본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작문 자료의 제한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사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전반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오류 분석의 결과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오류의 원인을 알려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교수하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보유(2002),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 문법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Ⅱ, 태학사
- 강파(2005), “한족학생의 한국어 조사 습득 곤란에 대한 분석”,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장래
Ⅲ, 민족출판사
-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승곤(1992),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 남기심(1993), 국어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 宣德五(1994), 한국어 기초 문법, 상무인서관
- 韦旭升(1995), 한국어 실용문법, 외국어 교육과 연구 출판사
- 이은경(2000),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주행(2000), 한국어문법의 이해, 월인
- 임호빈 공저(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세대 출판부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